

|                                                                                                                           |                                                                                                                                           |                                                                                                                                                |
|---------------------------------------------------------------------------------------------------------------------------|-------------------------------------------------------------------------------------------------------------------------------------------|------------------------------------------------------------------------------------------------------------------------------------------------|
| <b>리버데일 한의원</b><br>한의사 : 임 배로니카<br>3263 Johnson Ave.<br>Bronx, NY 10463<br>(718)796-0267/ 3636                            | <b>맥 한의원</b><br>한의사 : 김 글라라<br>침, 한약으로 만성병치료<br>224E 204St Bronx<br>(718) 563-1209                                                        | <b>이 준 승 치 과</b><br>Medicaid Accepted<br>503 S Broadway #250<br>Yonkers NY 10705<br>(914) 376-4033                                             |
| <b>뉴저지동해수산</b><br>EastSeafood Restaurant<br>445 Grand Ave<br>PalisadsPark, NJ07650<br>Tel 201-461-4447                    | <b>뉴욕라이프보험</b><br>김 여경(헤레나)<br>(203) 629-0266(O)<br>각종 보험, 투자                                                                             | <b>리샤 휴대폰</b><br>국내무제한, 한국5시간<br>월40\$ (세금포함)<br>(718)205-1200 Kim                                                                             |
| <b>중앙 장의사</b><br><b>하 봉 호</b><br>(718) 353-2424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br>Century 21 Royal<br>부동산 Sales, Rental<br>Mija (세실리아) Son<br>(914)310-6990(C)                                                | <b>C2 EDUCATION</b><br>수시등록 가능 대상 : K-12<br>142 N Central Ave<br>914 946-2324 573-6706                                                         |
| <b>COMMUNITY PAIN MEDICINE</b><br><b>신경 차단술</b><br>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br><b>(718) 224-1600</b><br>140-21 32 Ave Flushing NY | <b>아리랑 여행사</b><br>ARIRANG TRAVEL SERVICE<br>INC. 표 : 김 윤 환(Francisco)<br>영 희(Julie)<br>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br>1-212-563-3350<br>1-800-223-6225 | <b>김태복 통증 한의원</b><br>통증 전문 39 W 32 St.<br>Suite300 맨하탄 (212)<br>947-8382(B) 뉴저지 (201)<br>592-5514(H)                                           |
| Edward D Jamis, Jr<br><b>장 의 사</b><br>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br>베이사이드 노던 209가<br>(718) 224-2390<br>(888) 224-6088                  | <b>정일현(스테파노)지과</b><br><b>콜롬비아 지과대학교 졸업</b><br><b>엘름어스트(시립병원 앞)</b><br>(718)426-4343, (주자은비)<br>베이사이드718-352-3434                          | <b>HOPE AGENCY INC.</b><br>희망 보험사<br>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br>트럭, 밴, 생명, 교육, 은퇴<br>(718) 961-5000 김 모세                                               |
| <b>치 과</b><br><b>60세 이상 초진 무료</b><br>7 Sylvan Ave.<br>Englewood Cliffs<br>201-302-0700<br>손영준 아브라함                        | <b>김진상 3S 교정치과</b><br>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br>◎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br>◎ 북부 NJ : (201) 840-1123<br>◎ 중부 NJ : (732) 548-4848<br>김 진상 (빈센트)   | <b>김 철 공인 회계사</b><br>Young&Jullan, LLC<br>150-05 노던 (150가)<br>2F1 (플러싱)<br>(718)888-1217                                                       |
| <b>컴퓨터 출장수리</b><br>감시카메라/인터넷<br>전화설치/수리<br>이홍석(사도요한)<br>(201) 336-2522                                                    | <b>핑크 미용실</b><br>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br>3135 Grand Concourse<br>(between 204 & 205 St.)<br>Tel. (718) 563-6997                               | <b>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b><br>월-금 8:00 AM-4:30 PM<br>토 3:00 PM-8:00 PM<br>일 9:00 AM-2:00 PM<br>(718)353-7676<br>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
| <b>센츄럴 헤어살롱</b><br>(구 브롱스소망이발관)<br>남, 여 이발 및 미용<br>747센츄럴파크(100번도로)<br>(914) 725-0747                                     | <b>김영관 회계사무소</b><br>● 개인 / 법인 세무 보고<br>면 회사설립 사업허<br>공증, 번역 종업원상해<br>(718)961-4024(2)                                                     | <b>뉴욕정비(브롱스)</b><br>2801 Webster<br>(718) 295-3252                                                                                             |

원 단

2012, 1, 1

#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루카 2, 16-21)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434-7084

Fax : (718) 405-0053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 ㄱ 임당송

하례하나이다, 거룩하신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대영광송>

ㄱ 제1독서(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6,22-27)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sup>23</sup>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  
하여라. <sup>24</sup>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sup>25</sup>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sup>26</sup>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  
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sup>27</sup>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ㄱ 화답송 (시편 67(66), 2 - 3. 5. 6과 8 (● 2a)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1.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2.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 하리이다. ●
3.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ㄱ 제2독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4, 4-7)

형제 여러분, <sup>4</sup>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sup>5</sup>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sup>6</sup>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 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ㄱ 복음 환호송

(히브 1, 1-2a)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ㄱ 복음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다. 여드레가 차서,  
그 이름을 예수 라고 하였다.)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16-21)

그때에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sup>16</sup>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sup>17</sup>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sup>18</sup>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sup>19</sup>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곱곰이 되새겼다. <sup>20</sup>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sup>21</sup>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  
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ㄱ 영성제송

(히브 13, 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 전례

|          | 미사해설 | 제1독서 | 제2독서 | 신자기도 |
|----------|------|------|------|------|
| 1/ 1 새해  | 홍 승표 | 김베드로 | 김 민식 | 홍 명숙 |
| 1/ 8, 8시 | 이 윤형 | 김야고보 | 방 경숙 | 김 미수 |
| 11시      | 이 상식 | 김 문배 | 김 옥선 | 손 대심 |

복 사 : 새해 : 김 성준, 조 중훈

다음주 : 이 종제&정 무원 업 수연&김 크리스티나

봉헌자 : 새해 : 정복기 가족 다음주 : 주봉길 가족&유현현 가족

현금봉사 : 정의의 거울 Pr 다음주 : 찬송하올 어머니 Pr

운전봉사 : 양 경식 다음주 : 문 명남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 (1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 (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본당신부님 사제서품(생미사) : 신아네스, 이요한, 이바올라 봉헌  
 본당신부님, 부주임신부님, 수녀님, 사무장(생미사) : 익명봉헌  
 모든 분들께(감사미사) : 새 영세자 일동봉헌  
 감사미사 : 대건회 송년의 밤에 도움주시고 참석 하신분들  
 도움 주신 분들(감사미사) : 김마리아[은경] 봉헌  
 O, T, C 건물신축(생미사) : 신예레미아[홍원] 봉헌  
 사랑하올 어머니 Pr(생미사) : 김안나 봉헌  
 에어로빅 팀(생미사) : 김안나 봉헌  
 최바오로[충규](생미사) : 윤토마스[용태] 가족봉헌  
 유안젤로[근천] 가족(생미사) : 윤토마스[용태] 가족봉헌  
 온가족 새해(생미사) : 권의진 가족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김리차드, 김원자 봉헌  
 김희안 가족(생미사) : 가족봉헌  
 이요셉[득우]을 위해(생미사) : 가족봉헌  
 권마르꼬[용택](생미사) : 부모봉헌  
 부모님(연미사) : 윤토마스[용태] 가족봉헌  
 불쌍한 연옥영혼(연미사) : 윤토마스[용태] 가족봉헌  
 이근배(연미사) : 한프란치스카[희자]봉헌  
 신야고보[준우](연미사) : 송안드레아 가족봉헌  
 부모님(연미사) : 김리차드, 김원자 가족봉헌  
 이안드레아(연미사) : 이석정 가족봉헌  
 부모님(연미사) : 이아네스[인숙] 봉헌  
 부모님(연미사) : 이바오로[재웅] 봉헌  
 김도나도[용주](연미사) : 이바오로[재웅] 봉헌  
 안엘리자벳[경식](연미사) : 이바오로[재웅] 가족봉헌  
 최동식(연미사) : 정미카엘[진웅] 가족봉헌  
 조상님(연미사) : 김요한[동현] 가족봉헌

## 성가

입당 : 구세주 내 주 천주여 (성가 92)  
 봉헌 : 성모송 (성가 522)  
 성체 : 믿음 소망 사랑 (성가 176)  
 파견 : 구세주 빨리 오사 (성가 91)

## 교회 소식

### (1) 새해 미사

“ Happy New Year ”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

201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가족이 함께 아침, 저녁기도를 꼭 바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미사 후 가족별 축복 받으시고 떡국 파티와 세배가 있습니다.

### (2) 베드로 회 총회 및 신년하례식

베드로 회 총회 및 신년하례식이 2012년 이번 주7일(토) 저녁8시 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3) 예비자 교리반 시작

새 예비자 교리반이 1월15일(주일)부터 시작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 (4) 구역모임 소식

1월 달 구역회 교리주제는 4대 교리입니다.

구역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성지순례 소식

올해 에집트 사태로 취소된 제1코스(이스라엘, 에집트, 요르단) 성지순례를 2012년 1월 31일-2월11일 동안에 순례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리랑 여행사(212-563- 335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아버지 피정

아버지 피정이 “좋은 남자”란 주제로 1월15일(주일) 메리놀 피정의 집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베드로회 방문덕(막시오) 회장님이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8시 출발합니다.)

### (7) 민족의 날 행사

대건회 주최 민족의 날(구정) 행사가 22일(주일) 11시미사후 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 (8) 무료 의료보험 설명회

다음주8일(주일) 12시30분에 무료보험 설명회와 접수를 친교실 에서 합니다. 안내문을 보시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9) 성서 완독자

2011년 성서를 완독 하신 분 [박정미(아가다), 김경원(아네스), 김신자(카타리나), 한정수(바오로)] 시상식이 다음주8일(주일) 11시미사중에 있습니다.

### (10) 본당 모임

- 오늘 새해미사 후 가족사진(20×24)을 본당에서 찍어드립니다. 사진 값은 \$20이며(액자별도) 액자포함 \$75입니다.

- 대건회 월례회의가 다음주 8일(주일) 센타201호에서 있습니다
- 배드로회 주관 스포츠댄스를 매주 화요일(1월10일시작) 저녁8시 친 교실에서 실시합니다.
- 2012년 성당달력을 구역별로 나누어 드립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원 숫자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묵상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 아침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새해 아침에 복을 기원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이의 염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과연 어떤 삶을 복 받은 삶이라고 할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전해 줍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옛날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을 떠나려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것은 행운이나 성공과 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느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믿는 것, 인간은 하느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삶,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축복받은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모님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을 두고 우리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 이유는, 성모님께서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하느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느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 이번달(1월) 커피 및 친 교실 청소는 서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다음달 (1월달)은 동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담당구역은 의자와 테이블을 접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성탄헌금 : \$ 7,183.00(전야미사 포함)

교 무 금 : \$ 3,770.00 주보광고 : \$ 200.00(백한의원)

김운환(1-6) 임석태(완) 정두화(완) 윤인자(완) 김영애(완)  
황보 열(완) 최충규(완) 박중환(완) 손대연(완) 권경순(완)  
신대철(완) 안창호(완) 정우충(완) 양경식(완) 박문덕(7-11)  
이호원(완) 독고안드레아(완)

### 새해 아침에...

2012년 새해 아침이다. 한해를 잘 보내려면 첫날부터 잘 지내야 된다는 생각에 약간 조심스럽고, 긴장이 되는 새해 아침이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는 일종의 미신 같은것이 없지도 않지만, 어쨌든 잘 시작하고 싶은 날이다. 이제 지나간 해에 대한 아쉬움은 새해에 대한 희망으로 덮어버렸다. 누구나 새해를 그 어떤 바람을 가지고 맞이한다. 건강이 좋아지겠지, 사업이 나아지겠지, 장성한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기를... 결혼을 하기를...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한다. 복이라 고 하면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고대 중국에서부터 말하는 오복, 즉 다섯 가지의 복을 말하는데 바로 수, 부, 강녕, 유호덕 그리고 고종명이다. 근래에 와서는 고독을 면하게 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복중에 들어간다고 하지만...오복중 수는 장수를 말하고 부는 부유함, 강녕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이고 유호덕은 덕을 쌓고 그리고 고종명은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오복 중에 편안함이 두 번씩이나 들어간다. 편안하다는 것이 몸의 편안함도 포함되지만, 주로 마음의 평화를 말한다. 마음의 평화가 오복에 속할 정도로 우리의 큰 바람 중 하나이다. 반대로 편안하지 못하다는 말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말과 같은데 정신과에서는 불안의 주 원인은 욕심을 부릴 때, 즉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덕을 쌓는 것이 오복의 하나이다. 덕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 할 때 쌓아질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할 때이다. 그리고 보니 우리가 복을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받기도 하지만, 오복을 잘 살펴보면 거저 받는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복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를 받으면 복을 많이 받도록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하는 말로 들어야 될 것 같다. 사실 과거를 돌아다보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가 시작될 때의 바람들이 이루어 졌다고 해서 얼마나 행복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바람들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놓인다 라고 말한다. 마음이 놓이는 것은 나 자신의 만족일 때가 많다. 그래서 새해에는 그저 마음이 놓이는 삶 보다는 덕을 쌓고, 나의 마음이 편안해질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덜 버리고, 덕을 쌓기 위해서 나의 이웃에게 좀 후하게 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니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과 이웃에게 후하게 대하는 것과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자연 이웃에게 후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우 몽은